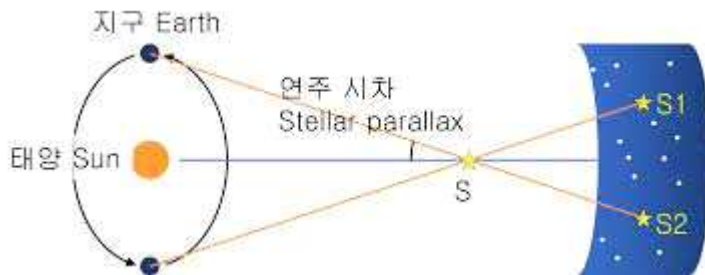


지젝의 정치신학 연구: 성 바울 읽기를 중심으로

- 지젝은 현대의 종말론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신학의 시각을 취한다.
- 현대의 종말론은 1)테크노-디지털 포스트 휴먼 종말론 2)뉴에이지 종말론 3)기독교 근본주의 종말론 (Paul's New Moment 186)
- '정치신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이라는 외견상 명확해 보이는 두 영역의 결합 또는 뒤엉킴” (Hammil&Lupton 2)

시차적 관점 Parallax View



I. 들어가며: 지젝의 정치 담론이 신학과 만나는 양상

- 지젝에 따르면, 시차적 관점 또는 시차적 틈은 “어떤 중간적인, 공통적인 토대가 가능하지 않은 두 개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시각의 대적” (Parallax 4)
- 종교는 ‘미학과 윤리학의 시차적 관점’ --“종교적인 것은 미학과 윤리적인 것이라는 두 개의 중재된 합이 아니라 시차적 틈의 급진적 확신(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의 메울 수 없는 심연, 공통 기준의 결여, 역설)이다.” (Parallax 5)
- “라캉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최고선을 das Ding이라고 말할 때 이 최고 선과 약의 das Ding은 시차적 변화를 함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Parallax 187)
- 지젝은 예수가 비움(kenosis), 즉 신의 모습을 비우는 작업을 통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빛과 사랑을 전파했고,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 올려 강한 사람을 약화시키겠다는 가르침을 실제로 육화한 사실을 강조한다.

II. 지젝의 ‘약한 정치’와 ‘신의 나약함’

1. 정치신학

- 벤야민의 정치신학
- 아감벤의 정치신학
- (근대화=세속화) 공식을 비판하는 탈세속화deseccularization, 포스트-세속화post-secular 시대에 종교가 재부상할 때, 정치철학과 신학의 결합 현상

- 신의 죽음은 신의 실질적 죽음이 아니라 무한한 열린 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 드푸르테 <바디우와 신학> 신의 죽음 (1) 종교적 차원의 살아있는 신의 죽음 (2) 니체 등 철학자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적 신의 죽음 (3) 휠더린 등, 시인 차원의 신의 죽음

2. 지젝과 바디우의 대결

- 지젝은 바디우의 사건event 개념을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호명naming과 연결한다. 바디우 이론이 진리-사건을 명분으로 주체에게 상황 속에서 정치, 예술, 과학, 사랑이라는 진리-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주체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호명과 같다고 비판한다.
- 기독교의 경우 십자가에서의 죽음 사건 이후, 신도집단, 즉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연루된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질 때 진리-사건이 된다. 즉 사건과 명명 간에 차이가 있다. 사건은 실재와의 외상적 조우(그리스도의 죽음, 혁명의 역사적 충격 등)이고 반면에 명명은 언어로의 사건의 기입(기독교 강령, 혁명의식)이다. 라캉의 언어로, 사건은 'a'이고, 명명하기는 새로운 질서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 새로운 기표이다. (Ticklish 167~168)
- 지젝이 바디우의 진리-사건 개념과 성 바울 읽기를 열린 구조의 시각으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인 제한적 읽기로 폄하하는 이유는 분석가의 담론¹⁾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리-사건 개념을 이데올로기를 통해 주인담론²⁾으로 만들어 신비주의의 차원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 지젝이 바디우를 라캉의 이론체계와 거리가 먼 이론가로 비난하는 이유는 '죽음충동'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바디우는 그리스도의 죽음충동과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과 부활과 희망에만 관심을 둔다.
- 죽음충동은 존재의 실증적 차원으로 축약될 수 없는 진리의 숨겨진 구성적 이면이다. 창조적 승화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부정적 제스처이다. 라캉은 새로운 으뜸기표의 개입으로 새로운 화합을 구축하기보다 부정적 행위를 우선시한다. (Ticklish 186~187)

1) 분석가가 치료과정에서 피분석자의 욕망의 원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세미나17, 41). 이 담론이 주인의 담론의 역이라는 사실을 라캉에게 있어서 정신분석이 지배와 통달을 향한 모든 시도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본질적으로 전복시키는 실행임을 강조한다.

2)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관련한 담론. 주인은 노예가 일하게 하는 행위자이다. 이 일의 결과는 주인이 전유하려 하는 잉여이다. (1)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인간의 욕망이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란 사실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한다.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체는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을 타자에게 강요해야 한다. 그러나 이 타자도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주체는 타자와의 투쟁에 꿈쩍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정, 즉 순수한 특권을 위한 투쟁은 최후까지의 투쟁이어야 한다. 이 투쟁은 이 둘 중의 하나가 자신의 인정을 위한 욕망을 포기하고 다른쪽 사람에게 복종할 때 끝나게 된다. (2)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변증법적이다. 그들 각각의 위치를 부정하도록 인도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인이 쟁취한 인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인정을 부여한 사람은 다른 인간이 아니라 주인에겐 단지 하나의 동물이나 사물에 지나지 않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로부터의 인정은 만족스럽지 않다. 반면에 노예는 일을 함으로써 자연을 이전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자연보다 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패배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받는다. 세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예는 자신을 변화시키며, 노예 노동의 개재에 의해서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과 달리 노예는 자기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역사적 발전은 노예의 산물이다. 즉 주인은 불만스러운 실존적 궁지에 몰리게 되고, 노예는 자신의 노예 상태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성취할 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

III. 지젝과 바디우의 성 바울 읽기

1. 죽음충동

- 지젝은 바울과 정신분석이 도착³⁾의 정반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 목표는 죄의 병적인 쾌락을 설명하는 초자아의 비난의 함정을 회피하는 관계이다.....바디우는 [법이 숨기는 법 자신의] 비속한 초자아적 보충을 피하기 위해 부활과의 직접적 동일시를 주장한다면, 라캉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즉 환상을 가로지르고 주체적 결핍을 견뎌냄으로써 ‘상징계적 죽음’에 종속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Kotisko 80~81)
- 코츠코는 바디우와 바울은 진리-사건을 추구해 새로운 으뜸 기표의 창출 이전에 법 자체의 부정성, 법 자체에 내재된 위반, 즉 법의 이면에 법을 가능케 하는 비속한 초자아적 보충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꼭두각시와 난쟁이 The Puppet and the Dwarf>에서 지젝은...‘기독교의 궁극적 위장은 병적인 감흥, 즉 그리스도의 고통받고, 상처 난 시체에 대한 집착에 의해 내적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Kotisko 87~88)
- 라캉을 이용한 지젝은 종교의 죽음충동, 철저한 종교 자체의 주체적 결핍, 즉 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약한 신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하는 약한 정치의 면모를 보인다.

2. 성 바울과 기독교

- 바디우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성상학에서 성 바울이....배신자인 유다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성 바울이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보다 보편적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되기 위해—예수는 배반되어야 했다. (Ticklish 184).
- 지젝이 유다로서의 성 바울을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초기 예수 추종자들이 실제로 예수가 행한 기적의 행위와 실질적인 예수의 진리-사건의 면모에 집착한 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런 양상을 살리지 않고 배반해, 구원과 사랑의 보편적 사고 형태로 변화시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출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지젝은 바울에 대한 전통적 해석, 즉 지금까지의 유대 율법을 극복하고 새로운 계약, 즉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시작했다는 해석을 검토하려고 한다. 지젝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대체론 입장보다 성 바울에 의해 보다 강조된 ‘신의 나약’을 강조한다.
- 신은 현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를 선택한다....바울이 말하기를 ‘신의 나약함은 인간의 권능보다 더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3. 비움kenosis

- 지젝의 정치신학적 입장은 비움kenosis의 존재론으로 진화해간다.

3) 도착증에서 주체는 자신을 충동의 대상, 타자의 향락의 도구로 위치시킨다.

-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전파한] “완전히 타자”인 신에 대한 개념은 신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의 신성함을 유지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케노시스라는 순수한 의미로부터 소외된 개념이다. (Caputo 81)

4. 유대교와 기독교

- 나는 예수를 유대교와 싸움불이지 않는다....예수는 유대교에 대한 대체 이름으로서가 아니라...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율법의 살아있는 강령을 부활renewal시킨 것이다. (Caputo 82)
- 기독교에 대한 세 권의 저서 <Fragile Absolute> <On Belief> <The PUPPET and the Dwarf>에서 유대교에 대한 지젝의 존중은 늘어간다....반면 바디우 입장과 심각하게 결별한다. <사도바울>에서 바디우는 유대교를 바울의 사명이 반대하는 모든 속성을 요약하는 영원한 적으로 제시한다. (Kotisko 88)
- 유대 법에 대한 이 부정적 평가의 뿌리는 바디우가 ‘죽음충동’이라 부른 것이고 지젝은 ‘비속한 초자아 보충’이라 부른 것이다.지젝의 법에 대한 유대적 입장은 초자아의 논리 혹은 ‘내재적인 위반의 논리’가 빠져 있다. (Kotisko 89)
- 기독교에 의해 주어진 억압에 대한 분노가 그것의 시원(유대교)에게 행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인 혐오’는 그 바탕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다. (Yerushalmi 128)
- 결론적으로 프로이트는 유대교가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아버지 살해라는 것을 억압하는 결함은 있지만 끊임없이 아버지-신을 유일신으로 믿어,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영성과 전통을 잘 고수하는 윤리적 측면을 지닌다고 본다. 반면 기독교는 아들-신까지 믿는 유일신-이전의 이단적 사상을 가진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기독교가 어떤 심리학적 진보를 재현한다면 유대교는 문화적, 지성적, 여성적 진보를 가진다.” (Yerushalmi 50)
- 지젝의 정치신학은 프로이트에게서 나타나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그러한 차이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가 아버지-종교와 아들-종교로 싸움 붙인 관계는 지젝의 담론에서는 이중적 비움(double kenosis)과 유대전통을 연결하는 시각에서 바울 해석 및 욕의 해석을 통해 화해된다.
- 지젝은 모세나 다윗 같은 주인 인물 대신에 욕 같은 인물에 관심을 집중한다.
- 욕의 당혹은 그가 신을 하나의 침투할 수 없는 das Ding으로 경험하는 사실에서 온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가 당한 시련을 허용함으로써 자기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따라서 욕은 본인이 신의 전체적 질서에 어떻게 맞추어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그것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다. (Puppet and 124)
- 욕과 신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인식은 지젝으로 하여금 약한 신, 비움의 신을 고통 중인 신 God in pai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게 한다.

IV. 고통 중인 신(God in pain)과 그리스도의 괴물성(Monstrosity)

- 이중적 비움—신은 더 이상 폭력적이고 복수하는 신이 아니라 당신을 비워 인간을 당신 형상으로 만들건만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이 알아보지 못하는 비움의 신이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모습을 비워 인간의 차원인 예수로 나타나지만 또 다시 소외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무력한 비움의 신이다.
- 지젝의 정치신학에서 신의 이중적 비움은 ‘고통 중인 신’이라는 개념과 ‘그리스도의 괴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초월적, 추상적, 신적 신과 인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범주가 시차적 관점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고통 중인 신’은 상징적 죽음과 실제의 죽음이라는 ‘두 죽음’ 사이에서 괴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괴물성’으로 이어진다.
- 예수는 신적 보편이면서 구체적 인간의 요소를 겸비해 ‘구체적 보편’(Hegel & the 175)이 되어 이도 저도 아닌 괴물성을 가진다.
- ‘죽음 사이’의 장소는, 지젝 주장에 따르면, 숭고한 아름다움은 물론 끔찍한 괴물의 장소이며, das Ding과 상징계의 중앙에 있는 실제적, 외상적 공간이다....지젝에게서 라캉의 후기 저서는 이 실제의 초월의 체계적 탐험 그리고 기괴한uncanny 괴물과 숭고한 영웅으로 가득 차 있다.실재에서 동시에 객체가 되는 분열되지 않는 주체가 된다. (Boucher 179)
- ‘그리스도의 괴물성’은 지젝으로 하여금 “인간이 신의 향문으로부터 나온 배설물이라는 루터의 유명한 진술”을 근거로 루터를 “최초의 위대한 반인본주의자”로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Ticklish 183).
- 또한 지젝은 신과 신의 배설물의 시차적 틈을 이용해서,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우리를 초자아 곤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에만 의거해서이다....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온 배설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 개신교 논리 안에서만 예수의 육화의 의미가 가능하다.” (Parallax 187) 즉 기존의 가톨릭은 그런 시차적 틈 속에 존재하는 예수와 신의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본다.
- 지젝의 바울적 유물론은 바디우처럼 기독교와 유대교의 단절보다 사랑과 은총에 입각한 괴물로서의 예수가 남긴 공동체 정신, 성령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분법적 대항보다는 제3의 요소인 공동체 또는 사랑의 능력을 강조하는 정치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